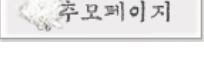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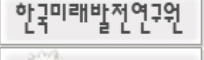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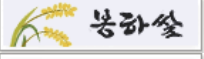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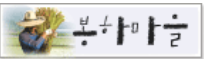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 **말과 글**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조회수 : 26084

등록일 : 2009.03.13 20:14

관용, 상대주의 이런 관념과 논리 이야기는 그만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사람세상 회원 한 분이 보내주신 글에 “저는 '상대주의 철학'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개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논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논리를 한번 짚어보는 것은 상대주의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부족한 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상대주의 철학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 또는 가치를 부정하고 절대주의를 반대하지만,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원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주의는 다른 가치나 반대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고 배제합니다. 그와는 달리 보편주의의 입장은 보편적 원리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다른 가치나 견해를 배척하고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 가치 또는 원리는 절대주의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상대주의의 가치는 적극적으로 상대주의 그 자체의 진리성을 강조하는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가치와 사상을 ‘반대는 하더라도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로서 소중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주의가 스스로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관한 경우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사상의 수준에서는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발전할 때에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주의의 한계, 관용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이것은 상대주의가 스스로 상대주의를 부인하는 모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순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적 기초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학과 논리의 세계에서 가치와 사상, 법칙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 타당성, 이런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뉴턴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불확정성의 원리, 상대성 원리 이런 이론을 처음 만났을 때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혼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물리학의 세계에서든 확률과 통계적 보편성 이런 것이 과학적 원리로 통용이 되고 있다는 글을 읽고 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진리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런 사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관용 이런 개념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말이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오늘 하루 열지않음

권리로 인정하고, 인내한다. 나도 상대와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처럼 사상과 논리의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우선순위, 양보와 타협의 균형점, 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 이런 것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의 연습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이 이런 사고에 익숙한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기초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용에 관하여 길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루한 이야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력하기    

총평 107개

산소맨 2009.03.13 20:15

아따 내마음한테 1등 뺏겼네..ㅋ

수니서니 2009.03.13 20:16

안녕하세요 노공님

에이 1등 놓쳤다

내마음 2009.03.13 20:17

ㅎㅎㅎ 이런 이런..잠시 놀랐습니다...관용.보편적 가치 잘 이해 하였습니다...

역시 캔디야 2009.03.13 20:17

비비디 바비디 부~ ^^  
소원 이루어요.

현진 2009.03.13 20:18

^^..  
이궁..~~~  
저녁은 드셨는지요..?  
잠시..딸내미 저녁 차려주다가..크..~  
잠시후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꾸벅..

산소맨 2009.03.13 20:23

내마음님 1등하시라꼬 좀 품수 쓰셨죠? ㅎㅎ 쓰서 자리잡아놓고 수정하시다니..ㅋㅋ

보미니&성우 2009.03.13 20:24

상식이라는 모호한 테두리지만... 그 안에서 보편,타당함을 인정한다면  
충돌하는 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내마음 2009.03.13 20:25

나의 동작은 ~~산소님 이게 다 우리 스승이신 만허공님에게 사사 받았습니니다 ㅎㅎㅎ

산소맨 2009.03.13 20:25

음..무슨말씀인지 눈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데 노공님 글에 반박(?)을 할라니 못하겠네요..우퍼 공부좀 해야겠다..

정도행보 2009.03.13 20:26

머리가 둔해서 두번 세번 읽어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요즘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설픈 저는 차마 글을 못 올리게 됩니다.. ㅎㅎ  
늘 건강하세요~!!(꾸벅)

노쟁생각 2009.03.13 20:28

대통령님^^  
하신 말씀들, 가슴깊이 담아두고  
하나하나 되새겨 보겠나이다^^

만허공 2009.03.13 20:28

사상과 논리의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우선순위, 양보와 타협의 균형점, 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 이런 것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의 연습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2)  
상대와 나의 조화,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의 조화,보편적 가치와 특수성과의 조화~~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0)...

다불어 2009.03.13 20:29

노공님이 말씀하시는 상대주의가 상대주의를 부인하는 모순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동시대의 사회적, 규범적 물이라고 정의할 때 동시대인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상대적 배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규정되는 민주주의, 즉 자유, 평등 등 이념은 상대적 배격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급수 2009.03.13 20:29

반갑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내마음 2009.03.13 20:31

만허공님 ..결구 넘어가는게 아니고 난 단지 진실만 말했을뿐입니다 ㅎㅎㅎ

노무현33 2009.03.13 20:32

어렵지만 나름테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게 소통이 아닌가 사려되었습니다..^(BABO철이)

다불어 2009.03.13 20:36

문간방 차지했군요. 바람님

목은김치 2009.03.13 20:37

20번째 추천드리고 글읽고 공부열공하겠습니다  
즐거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노공이산님~~~~~꾸벅

매혹의모멘트 2009.03.13 20:38

저는 사랑방 자리 확보요~

하늘an바람 2009.03.13 20:39

두고 두고 읽으며 학습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 하시옵소서

여늬^^y 2009.03.13 20:39

대통령님 오랫동안 댓글달아봅니다.. 사랑합니다...

나르치스71 2009.03.13 20:39

아~~이런!! 활발한 토론에 언제나 그 명쾌한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하며 난망할 따름입니다.사람사는 세상이 토론에 활기를 띄어 갑니다.대통령께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실듯 합니다.토론에 좋은 조언 계속 부탁드립니다^^

'사상과 논리의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우선순위, 양보와 타협의 균형점, 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 이런 것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의 연습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3)감사합니다.

지역발전 2009.03.13 20:40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합니다.

노무현33 2009.03.13 20:42

아이구 몇번 정독을 해야지...조금 이해는 하지만...  
저로서는 아직 어렵네요... ㅎㅎ  
공부좀 해야지...ㅋㅋㅋ(BABO철이)

현진 2009.03.13 20:46

공부좀 해야지...ㅋㅋㅋ(BABO철이)..(2)

나둥..~~~ㅋㅋㅋ..  
어려버요..ㅋㅋㅋ..

안가이버 2009.03.13 20:47

사상과 논리의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우선순위, 양보와 타협의 균형점, 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 이런 것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의 연습으로...  
이 말씀이 무척이나 맘에 와 닿네요.  
밖에서 봤던 대한민국과 안에서 겪어본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혼돈이 생길때가 많았습니다. 한국 국민들 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가라고 나를 학습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되었지만요. 보편적인 가치마저 아직 정립이 안된거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아직 정립이 안되다보니 보편적인 가치관도 상대적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로 비춰져서 양비론도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테올로기던 뒤틀려서 공유된 가치관이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질텐데 말이죠.

didfks 2009.03.13 20:52

우선, 저 노짱님과 통했나봐요.  
갑자기 너무 들어오고 싶어, 신랑 퇴근확인하고 왔더니. 그만~~~~~  
히히히,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요 전 항상 두번 이상을 읽어야 이해가 되니, 정말 저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저가 오늘은 핸드폰을 세탁기를 뒤져서 찾았어요.  
다행스러운건, 시작을 안했다는 사실이지요.ㅋㅋ  
노짱님, 이해 되세요. 이 아줌마의 상태가요.  
그래서 여러번 읽어요. 댓글 쓰고 다시 읽으려고요.  
안녕히 주무세요.꾸벅.

노무현33 2009.03.13 20:57

아줌마...ㅋㅋㅋ 하마트면 핸드폰 작살날뻔했네요.. ㅎㅎ  
저두 몇번 읽어봐야해유... ㅎㅎ(BABO철이)

didfks 2009.03.13 21:00

바보 오라버니, 저번건 자반고등어와 함께 냉동고에 누워 있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웠던지...  
아무리 찾아도 없자, 아이들이마지막 행동부터 시작하자고해서..ㅋㅋ  
세탁물과 함께 방긋 웃으며 있는거 있지요.  
제가 언제 저리 갖는지... 기억은 없어요. ㅎㅎㅎ

수니서니 2009.03.13 21:05

didfks님 상태가 두번 이상이면

가게 가서  
초콜렛 산 후 초콜릿 안 받았다고 박박 우기다  
받은 초콜릿이 내 가방 안에 있는걸 확인하고  
무안하였던 경험 있는 저는  
5번 이상 읽어야겠네요.

didfks 2009.03.13 21:10

수니님,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백화점에 가던중,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다시 집으로 와,  
사우나에서 논척도 있고.  
미국에서 오는 친구, 마중하러 서울역에 간척도 있어요.  
정말 집 찾아오는 것도 다행이에요. 고스톱을 쳐야하나???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발본과 2009.03.13 21:17

내가 믿는 가치를 보편적이라고 확신하면 상대주의와 충돌하지 않을까요? 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주의는 아마 불확실성에 대한 용인이나, 어느 정도의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으로 신념은 가지되 논자들이 옳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소통을 찾는다. 그렇다고 보면 공자가 말한 忠恕와도 통할 것 같네요.  
단 이 경우에는 토론에 일정한 질서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이치나 논리, 무엇을 증거로 볼 것인가, 무엇을 억지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해서 관습적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기준, 그리고 것처럼 답론 차원에서 반칙을 저지르는 행위를 도태시키는 사회전체의 개명도 등이 필수적이겠군요.  
영국의 경우 벤담은 이런 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제도의 개혁이 선결과제라고 봤습니다. 그의 개혁안들은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는 철학적 발본주의자들에게 전해져서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영미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사법제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치밀하게 짜여진 증거의 논리학, 보통법에 근거한 당사자주의 재판방식과 배심제, 진실발굴자(fact-finder)로서 설정되는 재판부의 임무, 그리고 청문회와 같은 의회의 재판기능입니다. 재판을 처벌로만 생각하면 의회청문회를 사법기능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재판을 진실발굴과정으로 보면 의회청문회야말로 사법기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발굴된 다음이라면,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판결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의회와 사법도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pegasus 2009.03.13 21:18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았습니다  
허나 절대주의의 민주주의를 너무 배제하면 잣대가 없어지고 후학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작금의 보수적 판사들의 촛불사범(?)의 판결에 '원칙과 소신'이란 단어사용을 남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해진것은 인정하고 상대성을 적용해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님이 언급하신 물리학에서의 '확률과 통계적 보편성'은 카오스 이론과  
부합되지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명제로만 남고 논술로 설명되지 않은 이론들..

부족한 글을 올렸습니다  
건강하시기를 ....

수니서니 2009.03.13 21:19

didfks은  
10번 읽으셔야할듯...  
그런데 판사들은 이해 못하고 웃길려고 꾸민 말인줄 아는게 정말 억울하죠?

(노공님께서 아줌마들이 수다 떠다고 뭐라 할라..)

스트레스성허리통증 2009.03.13 21:23

어제글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동담으로 한것이 어찌다 너울과도를 만드는지.

이 곳 주인어른께 진심으로 백배사죄드립니다.  
꾸우백.

더구나

노무현대통령님께서 그 연세에도 젊은이들과 인터넷소통이라는 다소 생소한 문화와 방식에 많이 익숙해 지신데 대해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거부감도 좀 있으시겠지요. ㅎㅎ.

권위는 차지하려하면 없어도  
구애받지 않으면 굳건히 지켜지는게 권위인 것 같습니다. 허걱.  
이런 말도 대장에 대한 불경죄인데..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시고,  
민족의 큰 어른으로 남는 테마를 찾아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치지도자야 말로가 뻔하거 아닙니까 허걱 이것도 불경죄.

손자가 재롱피우네 하고 봐 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 모두 꾸우백.

didfks 2009.03.13 21:24

그러게요. (노짱님, 지송해요)  
정말 아줌마의 비애를 누가 알까요. 흐흐흐흐  
벌써 세번 봤어요. 외워서 써볼까? 고민중입니다.  
혹시 알아요. 머리가 갑자기 화악 좋아질지????

수니서니 2009.03.13 21:38

그런 심정이었군요 무현동상님  
도닥도닥

우리 사사세에서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것이다 ----- ( 볼테르 ))

운동을 해야겠네요

pegasus 2009.03.13 21:38

무동님  
어리광(?)은요  
그냥 해우소문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산하 2009.03.13 21:40

노공님 안녕하세요^^너무너무반갑습니다 올려주신글들열심히 몇번씩읽고또읽어공부하겠습니다 글 자주올려주세요^^

칼의 노래 2009.03.13 21:49

상대주의란 말을 절대적 무한자유로 이해할 경우,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일까지도 이를 인정하고 관용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  
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의 반대를 절대주의로 본다면 그리고 보편적 가치가 절대주의와 같지 않음을 볼 때, 부분  
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개념적 충돌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보편적 가치에서 보편적이라는 말 자체가 불변의 진리(또는 약하게는 원칙)라고 하는 절대성을 내포한 의미까지 보기는 어렵고, 보  
편적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미 상대성을 의식하고 있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대주의란 말 자체에는 이미  
쌍방의 상대가 존재하기 위한 상대성...즉 제약과 제한을 인정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막무가내 해석을 해 봅니다.

마당 2009.03.13 21:50

많은 사색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멤비뚜경 2009.03.13 21:57

아침에 비바람이 몹시 불터군요. 그래서 우산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공기의 움직임을 아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아이쉬타인의 상대성원리보다 이 공기운동의 원리를 알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노무현 2009.03.13 21:58

외국 민주주의 처럼 나와 다른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현동상 2009.03.13 22:09

노무현님(이게 보편의 호칭이라 이렇게 부르려 합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해우소로 빠질까봐 조마조마 하는 심정 아십니까?  
제가 무슨 욕을 한것도 아닌데, 제가 님 밑에 와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진짜 통곡합니다.  
님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지만 이 잔혹함을 님께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곳 게시판 이전엔 이런 감정을 몰랐습  
니다. 그러나 제글이 사형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님의 게시판에와서 느껴야 한다는 이 사실 너무도 비통하고 비참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그냥 뉘두리 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가영아빠 2009.03.13 22:26

소통^^나와보라구 그래 우리노짱님처럼 잘하시는분있으면 ㅎㅎㅎ  
집에와서 무자계 기분굿입니다 우리둘째딸이 옆에서 대통령할아버지다라구  
하며 울동하는데 글보라 아이보라ㅋㅋㅋ  
우와 오늘만같으면...  
날씨가 많이쌀쌀하네요 노짱님 건강잘챙기세요~~~

과천아줌마 2009.03.13 22:28

관심있는 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 읽으면서 민주주의 공부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많은 사상적 공부를 했습니다.

논리를 만드는것은 가능해도, 논리를 지키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를 만드는 순간, 다른 반대되는 논리에 부딪치니까요.  
그래서 논리는 한없이 발전하고, 사상이 아무리 새롭게 태어나도, 완벽할순 없조.

완벽할수 없는 것은 차라리 아름답다고 보는게 인간들이 세상사는 냄새 아닐까요?

상대주의의 맹점또한 그 논리가 정한 테두리에 대한 다른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모두 인간 스스로, 자기 위주의 사고 방식 때문에 태어난 오류입니다.  
우리는 모두,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건 보편 타당한 철학이라 생각 하지만,  
완벽할수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보편 타당한 철학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타당할수 없조.

그러나, 보편 타당한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면, 조금더 보편 타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노공이산님에게서 "배려"를 배웁니다.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그건 바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처럼 아름답고, 보편 타당한것이 있을까요?  
이제, 논리를 조율하게 만들고, 가슴을 열어 진리에 가깝게 가게 만듭니다.  
아니, 진리 자체에 머물게 만들죠.

진리란 무엇 입니까?

그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사람답게 보는것, 사람답게 느끼는것이 진리 아닐까요?  
우리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와 철학을 만들어 냅니다.  
역사상 그 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철학들은 다시 한 시대를 지내고 나서  
그 철학이 유행처럼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이 유행처럼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은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에는 철학과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상과 논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가슴을 열고 사랑을 품으십시오.

진실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그대가 진실입니다.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3 23:35

전 정치는 잘모르는 비무한 아가씨입니다.....  
오로지 태어나서처음 선거라는걸 했을때 비무한이두손으루  
노무현 대통령님 꾸~욱 찍었을뿐이공~~~~~정말 행복한  
5년을 지냈을뿐이고~~~~지금은 100년같은1년지났을뿐이고~  
노무현대통령님 18대후보 다시 어케 안될까용?ㅎㅎ  
늘 진실함이 묻어나는 님을 사랑합니다...고말씀니다^^  
권양숙여사님 너무 부러울 뿐이고~~~~  
제 반쪽두 노무현대통령님처럼 진실되고 또  
진실된 남자를 찾겠습니다.....

피그셋 2009.03.13 23:51

<<상대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말이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고, 인내한다. 나  
도 상대와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  
거나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하여 무시하고 배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한다면 대화나 토론이  
라는 것이 없겠지요..

늘 다른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지낭 2009.03.13 23:51

짧은 글을 좋아하지만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노력도  
해 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사랑 2009.03.14 00:08

상대주의와 타협, 관용에 대한 말씀에 많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상대주의  
와 관용, 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행동할 때에 침해를 당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취할수 있는 반응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잘 적용되어 조화를 이룰 때에는 사회는 나름대로 이상적인 (혹은 혼란스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이 작용하지 못할 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강요되는게 민주적 원칙인 것 같고, 사회적 강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런 왜곡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은 지켜져야하는 것인가요?

터진후라이 2009.03.14 00:13

어쩔..종교적관용론 상대주의.89페이지 읽음 진행중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이 부분..좀 어렵습니다. 눈 동그렇게 뜨고 막 집중해서..몇페이지  
근근히 넘어가면..어느새 종착역..^^  
어려운데..참 재미있어요.  
노공이산님의 시너지가 아니었다면..평생에 이런 장르는  
접해 보지도 못하고..그리 살뻔 했죠.  
거대한..정치적 현상의 정답을..찾아..  
이거 이전에..소통의 과정..방법..나와너사이의 관계를  
더욱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그 소통의 비법을  
서서히 깨달아 가게 되었다는..인식,,이것에게 고마와집니다.

무현동상님의 조바심에게 마음이 아파요.  
무동님.  
너무걱정 마세요.  
그리 철딱서니 없는 사사세 사람들 아닐거예요.  
그 걸음마..순서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요.^^;

비단장시 2009.03.14 00:22

무현동상님의 조바심에게 마음이 아파요.  
무동님.  
너무걱정 마세요.

님처럼 바른소리 하시는분도 계셔야 하는겁니다..  
지는 공감 200% 드렸어요~ ㅎㅎ

삼학 2009.03.14 01:29

항상 편안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에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글을 읽고 民主主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감사합니다. 사사세에 회원을 위해 용기주는 글 자주 올려 주시길 ....

좌과 2009.03.14 03:16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번 읽어보면 느낌이 오겠지요.  
건강하시지요?

짱나라 2009.03.14 04:24

멋지십니다.... 솔직히 다 이해하긴 어려우나 마음은 전해옵니다.  
건강하십시오.

빨소 2009.03.14 06:23

(상대주의가 스스로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이것은 상대주의가 스스로 상대주의를 부인하는 모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諸行無常)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푸를른술아 2009.03.14 08:46

어렵지만 무슨뜻인지 알것같은.... ^^

빨간사과꼬마 2009.03.14 10:33

천천히 이해될때까지 읽어야 겠습니다..

시골이 2009.03.14 11:03

글을 읽는데 노공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듯한 착각이 듭니다 ^^

digna 2009.03.14 11:10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사고를 편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나, 상대와 의사 소통이 필요 할 때는 보편적인 시각이 필수조건입니다.  
내 방식대로만 밀고 가다 보면 결국엔 대화가 파행에 이르는 되지요.  
보편적인 시각의 눈높이를 가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다양한 계층의 실제 경험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한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볼 수는 없기에, 결국엔 책을 통해서라도 습득을  
해야 합니다.  
'독서는 영원한 스승'

항상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 사람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의 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정난 2009.03.14 11:11

이분글에 반대하나 놀러 봅니다 이유없습니다  
강 숫자 한번 만들어보구 싶습니다  
물론 심적으려야 찬성이죠  
한번 튀어 보구 싶습니다  
일종의 질투죠

인드라망 2009.03.14 11:13

오늘은 모처럼 일이 없는 주말휴일.. 그래서 여기 사람사는 세상에 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낀답니다.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터진후라이 2009.03.14 11:29

digna님의  
(독서는 영원한 스승).. 이 코멘트에 덧붙혀  
잡담 하나만 할게요.

물론..이 스토리도..책에서 본 내용이며.  
그대로 옮김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팀..같은 거리고 해야 할까요.  
나름대로..절실한 심정으로..^^;

한 엄마가 있고. 개구장이 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게임에 심취해 있고.  
심각한 중세입니다.  
책좀 읽고..사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책방에 가자..  
가장 읽고 싶은 책이 모아.  
아들왈.  
컴퓨터게임관련 만화.ㅋㅋ 라고 했든가.  
아무튼..책을 사면서도 게임관련 도서를 원합니다.  
엄마는 동의했고.  
이녀석은..그 책을 탐독합니다.  
그러는사이..책을 읽는다는 것은 재미있다..  
이것에 조금씩 길들여 집니다.  
이런방법으로..아들은 책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제는..그속에서 습득한 지식을  
좀 오버스러울정도로 엄마에게 자랑 한다고..^^;

유아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심오하고 머리통 뽀사지는 어려운책이거나 이야기.  
적용하기 수월치 않습니다.

내가 흥미있고..시간도 잘 적일수 있고.  
비교적 쉬운..도서부터..출발해서  
책이 재미있다는 저 아들의 과정.  
이 코스를 거치지까지가 관건 입니다.

이 과정을 습관처럼..체질화 시키고  
생활화 시키면.  
책은..보석같이 귀한것이며.  
안먹어도 배부른 나의 무형의 자산이 되어 줍니다.  
언젠가는.  
이 팀을 꼭 사람사는세상에게..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공이산님의 타이들이 어려워서  
찢찢매는 군상들..더러 있을 겁니다.

저 과정들을..거치고.  
다시..급습어 생각해 보면..이런저런 타이들이  
제법 친숙하게 와 닿을거다..싶거든요.

저는..책읽기의 즐거움을..차절하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말이길어..죄송합니다.

digna 2009.03.14 11:36

김정난님. 반갑습니다만  
반대는 누르지 마쇼~~~~~ 잉.  
노짱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랍니다.  
노짱님은 정치인 이시지만  
상당한 지식수준의 달인 이십니다.  
노짱님 말씀이나 글을 보면,  
엄청난 독서가임을 느끼게 됩니다.

emfvnf1450 2009.03.14 12:11

동감합니다



다불어 2009.03.14 12:43

너무 확연적인 것 같아서 제가 반대 하나 누릅니다.  
노공님 지송해요 ^^

고물머스 2009.03.14 12:51

"나도 상대와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이말씀은 참여정부 아니 노무현대통령님의 정치철학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 이철학 지지합니다!.

화성에서온남자 2009.03.14 14:12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말이 무슨말인지 알아듣는데만 30여년 걸렸는데ㅜㅜ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군요~~

낭만식객 2009.03.14 15:21

좋은글 고맙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대통령님은 언제쯤 뵙지요...?

시인의노래 2009.03.14 15:24

어쩔 글도 이리 잘 쓰실까?

안성사랑 2009.03.14 16:34

좋은 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글 읽는 것도 좋지만 좋은 말씀 직접 듣는것도 더 좋을 듯 싶는데  
기다리겠습니다.그날을

늦었지만 2009.03.14 16:58

자주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때 그저 저희들 옆에 있다는걸 알려만 주셔도 큰기쁨이고, 위안이 됩니다.

녹차 한 잔 2009.03.14 17:14

와,, 꼭 수능 언어영역 지문이나.. 윤리 지문 같아요.  
이런 강의(?) 재밌어요.여러번 읽고 생각하고..이야기 나누고..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한다는것..신나요!!

진영지기 2009.03.14 18:19

대장님의 봄은 언제 오실런지....

계절은 봄인데

나의 봄은 언제 올라나..

우짜던가 건강하셔야 합니다

두 분다에

없음 2009.03.14 18:48

너무나 좋은글 감사합니다.

'지루한 이야기'라뇨?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또 고소한테요.

demon 2009.03.14 18:54

좋은 글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시 노통령님을 존경할 수 밖에 없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늘푸른 2009.03.14 21:03

노대통령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집단 속의 개인(동양)으로 바라보는 시각  
개인이 모인 집단(서양)으로 바라보는 시각

해방후 조선시대 이후 통치철학은 잠존하나 그 권력의 실체는 빈공간으로 비어져 있었는데, 친일부역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전의 통치철학(치자를 위한 윤리)이라고 봅니다.

치자의 논리인 그 윤리(통치철학)는 해방이후 친일부역세력에게 필요한 도구로 형식적으로 받아드린 서양의 보편적 가치(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대신 실제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 가치로 그대로 사용되어 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가치가 자리잡지도 못하고 내재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그 당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구지배세력들에게는 치자의 논리인 윤리로 한국사회를 지배하기를 바라지 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보편적가치가 확대되기를 꺼려한다고 봅니다.

늘푸른 2009.03.14 21:08

학교 교육과정속에서  
국민윤리가 아닌 헌법을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헌법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후

대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digna 2009.03.14 21:50

노장님의 정치사상인 '실용주의'와 '관용'  
잊지 않겠습니다.  
'관용'에 대해선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천이 따라야겠지요.  
다음에 기회되면 노장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실용주의'에 관한  
좋은 글 접할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4 22:32

노무현대통령님^^  
삶이란??유머루다가 제가올렸는데..  
안보셨나용?삶은?계란..삶은계란ㅋㅋㅋㅋ  
제 댓글 보시궁 미소 살포시 ㅎㅎ  
쪽지도 날려주시든 로또사러 달려갑니다당^^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  
수원사는 비루한 아가씨 올림^^

코알라ksj7 2009.03.14 23:21

위에 댓글이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관용에 관한 얘기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때에는 이거저것 다 생각하고 하는 것  
인데, 반드시 관용이 끝났으면 실용주의 차례. 강의시간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구별지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봐  
요. 다른 주제를 얘기해도 그 이야기안에 관용이 들어있잖아요. '관용'에 대한 얘기에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는 기준은 필요하지 않  
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보니 관용은 어느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모든 요소의 배경인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노공이산님의 글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있으면 읽어보고 댓글 한번 달아보고 없으면 없는것이죠. 때되면 밥을 먹는것  
처럼 이곳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digna 2009.03.14 23:49

아이코!!  
코알라님 죄송해요.  
노장님께서 소유하신 무궁무진한 지식과 실천을 가까이서 접하고픈 욕심에  
제 개인적인 바램을 나타내고 말았답니다.  
제가 감히 노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제가 너무도 궁금하고  
좋은 글을 기다리다 보니 제 욕심을 과하게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틈만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귀한글을 읽고 또 읽는 답니다.

황석산 2009.03.15 00:43

오늘도 숙제(열번읽기)해야 겠습니다.논술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행수 2009.03.15 01:11

노공님 덕분에 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공부를 많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노공님의 관용에 대한 글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역사가 떠오릅니다..

마산골목대장 2009.03.15 06:50

민주주의에서 상대주의의 가치는 적극적으로 상대주의 그 자체의 진리성을 강조하는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가치와 사상을  
'반대는 하더라도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로서 소중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공감입니다. 대통령은 노무현

술가실 2009.03.15 11:16

어렵네요.

나녕 2009.03.15 13:46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꼼꼼히 이론에 접근해 봅니다.

광호 2009.03.15 14:14

노공이산님의 글을 자주 보고 싶은데 기자들의 엉뚱한 삽질에 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노공이산님의 글 덕분에 저도 오랜  
만에 들러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글로 자주 보였으면 합니다.

대륜 2009.03.15 14:16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고, 인내한다. 나도 상대와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름'을 갖는 인간의 기질에 따라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  
고, 인내한다.' 쉽지 않은 듯 합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고집쟁이는 엉뚱한 소수의견을 갖기도 하지요. 가끔은 지내고보면 달랐던 의견이 맞기도 하고요. 다만 '언젠가  
는'하고 인내하기 까지는 포기나 확신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고, 인내한다.'를 받아드릴 때, 마음의 끝 자락에 '용  
서'라는 것을 끄집어내니 '관용을 용서'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감히 이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글을 읽는 행복'이라는 것 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꾸벅^^^

화용월태 2009.03.16 11:09

반칙하고 싶은게 사람맘이고, 그것이 통용될때 정당하다고 생각도 할 수있을법한데 ㅎㅎ;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고집스런 생각을

해왔고 ㅎㅎ 반성해봅니다^^;

돈나무 2009.03.16 12:44

그러나 상대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말이 '동의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고, 인내한다. 나도 상대와 논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합의된 규칙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거나, 상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종교든, 이념이든, 권력이든, 작게는 내삶의 어떤 일부분이든, 철저히 서로를 배격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도 봅니다. 생각이 깊어진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것은 아니니 위에 복사한 노짱님의 결론을 저의 결론으로 삼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 2009.03.16 17:20

참 민주주의란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할때에는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예수 부처가 말한 것들이 바로 참 민주주의 참 공산주의이고 침략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들이 민주주의 단어를 빌린 사기 단어이지요 즉 조중동이 인권을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인권을 말하고 뒤에서는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즉, "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발전할 때에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 이말은 이렇게 고쳐져야 합니다 "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입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기입니다 그들과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입니다

사로 2009.03.17 03:41

'상대주의'를 용어정의하면서 '절대주의'를 부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주의로 모든 이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의 하나인 '절대주의'는 왜 용납해 주지 않는냐는 반박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인 공격이 되고 맙니다. 즉, 용어정의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순되지 않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용어정의는 일관되게 내려져야 하며, 이중잣대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주의'의 한계 역시 인류보편의 가치, 혹은 1대 1의 인간관계에서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의 결정을 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서 제가 한미FTA나 대연정 등을 추진한 참여정부에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올바른 연대는 진보끼리, 보수끼리 등등과 같이 친구끼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갈등을 없애는 연대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관적인 인상으로 자기와 다른 견해나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자기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 분노를 키우게 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대화하지 못한 상대방이란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의 견이 다르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화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 명분을 준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력을 얻고 잃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발언권이 있는 힘센이가 주장하면 모두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들이 상대주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떤 정부도 최소한의 객관적 진리(잠정적인 진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역시도 우리 시민들이 이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한 논리, 합리, 이성의 영역과 선택의 문제인 정책의 문제로 사안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무엇을 가르친다거나 배운다는 식의 계몽주의의 개념은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선기를 하면 어떤 권한을 피선거권자에게 주는 것인지 학습할 따름입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면 시민들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있겠지요. 물론 그 때는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1대 1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진리를 알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력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편법을 사용하고, 나는 정의이고 상대방은 안된다는 이중잣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게시판에 보다 자세한 글을 올려 놓겠습니다.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162715&start=0&search\\_target=&search\\_word=](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162715&start=0&search_target=&search_word=)

조동관 2009.03.17 15:03

이런 면학적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노짱께서 문제를 푼~던져주시면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같이 결론을 찾아 토론하고.....  
우리 노짱님같은 분이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중에서 울 노짱님같이 열린 사고를 가지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님이 자랑스럽습니다.님을 사랑하게 된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cjsals 2009.03.17 17:36

여러번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앵초 2009.03.18 23:09

사람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것 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에 궁금증이 조금은 풀립니다. '억지사지'가 관용과 상대주의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선 2009.03.24 21:54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쉽고 재미있게 ...  
존경합니다.  
보고싶습니다.

청룡연못 2009.03.27 00:05

상대적 보편주의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당신은 여전히 절대적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조나딘 2009.04.11 02:36

선을 수평으로 한 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다시 아래에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보편과 상대는 가운데 선이되고,  
아래의 선은 자신이 끌어 올리려는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수평선은 이상적인 절대 진리가 됩니다.  
하단의 선을 중간 선으로 생각하면 그 아래에 수평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선들이 상단과 하단에 수평으로 생기게 됩니다.  
무한한 상단의 선들도 존재하고, 무한한 하단의 선들도 존재합니다.  
현상에 드러난 논리에 의해 중간 선의 평균 값을 내어서 마치 굵은 한 선이 있는 것 처럼 시도를 합니다. 과학과 논리라는 잣대를 사용합니다.

끝없이 상단을 향해 선을 그어도 결코 끝 선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높은 상단에 수평선을 그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보다 더욱 아래에 있는 선들을 자신 보다 위에 있는 선으로 간격을 좁힌 것입니다.

잊지않을게요02 2009.05.29 21:52

노무현대통령님의 힘찬 목소리가 컷가에서 맴도는 듯 합니다..

바보가되자 2009.05.29 23:51

오늘에서야 이 글을 읽다니... 눈물만 흐릅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민주주의와 상대주의의 가치를 마음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저에게는 이 두가지 개념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 수록 생기는 아집을 버리고 관용을 아는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도 당신께 받기만 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파이어펀트2 2009.05.31 16:30

노짱님 잘계시지요?

토론은 계속 이어져야지요. 노짱님이 읽으신 책 하나씩 읽어보고 답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십시오. 드라마도 좀 보시고요.

성터 2009.06.02 03:19

살아 생전 노짱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노짱뽕뽕 2009.06.06 00:20

읽어도 읽어도 질리지 않는 노짱님 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선 왜 눈물이나는지ㅠㅠ

바보들 2009.06.19 01:20

노대통령님 살아계신 듯 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당신의 국민입니다. 항상 저의 대통령이십니다.

사이다가흘린눈물 2010.01.05 20:04

전 아직도 멀었네요....머리가 아파오는데....공부해야겠습니다. 대통령님 직접 설명해주시면 더 속속 들어 올텐데....레포트 쓸라고 자료 찾으러 왔어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제 머리속에 콕콕 좀 집어 넣어주세요. ㄷㄷ

손평쓰기

등록

## 목록

| NO  | 제목  | 조회     | 글쓴이 | 등록일        |
|-----|---|--------|-----|------------|
| 38  |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 27315  | 운영자 | 2009.07.22 |
| 37  |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 4519   | 운영자 | 2009.07.22 |
| 36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 2938   | 운영자 | 2009.07.22 |
| 35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 2701   | 운영자 | 2009.07.22 |
| 34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 13701  | 운영자 | 2009.07.22 |
| 33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 387846 | 노무현 | 2009.04.22 |
| 32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 289421 | 노무현 | 2009.04.21 |
| 31  |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 354949 | 노무현 | 2009.04.17 |
| 30  | 부탁드립니다 (971)  | 157174 | 노무현 | 2009.04.08 |
| 29  | 사과드립니다. (1246)  | 186144 | 노무현 | 2009.04.07 |
| 28  |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 130867 | 노무현 | 2009.03.19 |
| 27  |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 56633  | 노무현 | 2009.03.15 |
| 현재글 |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 26084  | 노무현 | 2009.03.13 |
| 25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 30603  | 노무현 | 2009.03.12 |
| 24  |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 26671  | 노무현 | 2009.03.07 |
| 23  |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 16585  | 노무현 | 2009.03.06 |
| 22  |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 52297  | 노무현 | 2009.03.05 |
| 21  | 연속극 끝났는데... (271)   | 119264 | 노무현 | 2009.03.05 |
| 20  | 정치하지 마라. (275)  | 109593 | 노무현 | 2009.03.04 |
| 19  |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 28450  | 노무현 | 2009.03.01 |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 무 · 현 · 재 · 단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완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사 ALL RIGHTS RESERVED. **분회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묘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분회장터 1589-1946 / 생가샵터 055-344-1005